한덕현 **제니스영어** Grammar

2017년판 1쇄 추록

(2018년 6월 27일 기준)



제니스 영어 Grammar 2017년판 1쇄 - 추록

내용 추가 및 오류 수정(2018년 6월 27일 기준)

2017년 8월 29일 발행된 제니스영어 Grammar 2017년판 1쇄에서 개정판(2018년판, 2018년 7월 6일 발 행)의 추가된(보완) 내용과 구판(2017년판) 내용상의 오탈자 등을 정리한 추록(정오포함)을 게재합니다. 문제 교체 및 추가된 부분은 위치란에 표기해 두었습니다.

위치		교체 및 추가사항		
	12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을 고르시오.	2017. 국가직 9급 추가 채용	
p. 44 12번 -교체		① 그 클럽은 입소문을 통해서 인기를 얻었다. → The club became popular by word of mouth. ② 무서운 영화를 좋아한다면 이것은 꼭 봐야 할 영화이다. → If you like scary movies, this is a must-see movie. ③ 뒤쪽은 너무 멀어요. 중간에 앉는 걸로 타협합시다. → The back is too far away. Let's promise and sit in the middle. ④ 제 예산이 빠듯합니다.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15달러뿐입니다. → I am on a tight budget. I only have fifteen dollars to spend. ③ 의 입소문으로'라는 표현의 by word of mouth의 표현을 아는지 묻고 있다. ② '꼭 봐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must-see라는 표현에 대한 물음이다. ③ '타협하다'는 compromise가 된다. promise는 '약속하다'가 된다. 따라서 promise를 compromise로 전환한다. 이와 같이 자의 유사성을 이용한 문제는 과거 2013년 국가직 9급에서도 출제한 전력이 있다. 이때는 '동행하다'의 accompany와' 라는 의미의 company를 구분하는 문제가 있었다. ④ '예산이 빠듯한'의 on a tight budget의 표현을 아는지 묻는다. 또한 to spend가 앞의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용법 쓰인 것도 확인하는 것이 옳겠다. 당연히 여기서의 have는 사역동사가 아닌 '가지다'의 의미로 쓰인 것은 말할 것도 역장된		
p. 106 09번 -교체	09	및 전 부분 중 어법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A swing vote is a vote that ① is seen as potentially going to any of a number of candidates in an election, or, in a two-party system, may go to either of the two dominant political parties. Such votes ② are usually sought after in election campaigns, since they can play a big role in determining the outcome. A swing voter or floating voter is a voter who may not ③ be affiliated with a particular political party(Independent) or who will vote across party lines. In American politics, many centrists, liberal Republicans, and conservative Democrats are considered "swing voters" since their voting patterns cannot ④ predict with certainty. 10 See A as B(A를 B로 보다)가 수동태가 된 것이다. 바르게 쓰였다. ② seek after의 구조가 수동태가 된 것이다. 산자나 after의 목적이가 없으므로 당연히 수동태가 된 것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be affiliated with의 형태로 '~에 속하다. ~에 관계가 있다'의 의미가 된다. ④ 타동사 predict의 목적어가 없으므로 능동이 아닌 수동이 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주어인 their voting patterns와의 의미 관계도 수동이 된다는 것도 확인한다. 고로 predict를 be predicted로 한다.		

(최석) 부동표는 선거에서 많은 후보 중 어느 후보에게나 갈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거나 양당제에서는 두 유력 정당 중 어느 당으로든 갈 수 있 표이다. 그런 표는 결과를 결정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유세에서 그런 표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동층 유권자는 특정 정당에 속하지 않은(무소속) 유권자이거나 당의 노선과는 반대로 교차 투표를 하는 유권자이다. 미국 정치에서 많은 중도파 당원들, 진보 공화당원 그리고 보수 민주당원들은 투표 양상이 확실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층 유권자"로 간주된다.

단어숲어정리

swing vote 부동표

seek after ~을 찾다, 구하다

play a role in ~에서 역할을 하다

centrist [séntrist] n. 중도파 [온건파] 의원 [당원]

swing voter 특정한 지지 정당이 없는 사람, 무당파층의 사람, 부동표를 던지는 사람

정답 ④

11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2017. 지방직 9급 추가 채용

- ① 예산은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약 25 퍼센트 더 높다.
 - → The budget is about 25 % higher than originally expecting.
- ②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해야 될 많은 일이 있다.
 - → There is a lot of work to be done for the system upgrade.
- ③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는데 최소 한 달, 어쩌면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 → It will take at least a month, maybe longer to complete the project.
- ④ 월급을 두 배 받는 그 부서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 → The head of the department, who receives twice the salary, has to take responsibility.
- (해설) ① 타동사 expect의 목적어가 없고 문맥상 "예산이 기대된 것보다 더 높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능동의 현재 분사가 아니라 수동의 과거분사가 돼야 한다. expecting을 expected로 한다.
 - ② to be done의 의미상의 주어가 a lot of work이 된다. 따라서 a lot of work과 do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능동이 아닌 수동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동의 to be done으로 한 것은 옳다.
 - ③ it take \sim to v의 구조로 '…하는 데 \sim 걸리다'의 의미를 전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바르게 쓰였다.
 - ④ '배수+명사'의 형태로 '~의 …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twice를 사용해서 두 배를 표현한 것이다. 바르게 쓰였다.

정답 ①

17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2018. 국가직 9급

It would be difficult ① to imagine life without the beauty and richness of forests. But scientists warn we cannot take our forest for ② granted. By some estimates, deforestation ③ has been resulted in the loss of as much as eighty percent of the natural forests of the world. Currently, deforestation is a global problem, ④ affecting wilderness regions such as the temperate rainforests of the Pacific.

p. 110 17번 -교체

p. 107 11번

-교체

- 에설 ① 형용사 difficult가 it is difficult to v의 형태로 가주어, 진주어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바르게 쓰였다.
 - ② take ~ for granted의 형태로 '~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다'의 의미를 전하고 있다. 바르게 쓰였다.
 - ③ result in은 '~을 야기하다'의 표현으로 수동태를 이루지 않는 동사구다. 물론 다음에 목적어가 살아 있으므로 절대로 수동이 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 ④ S+V, v-ing~의 형태로 분사구문을 이루고 있다. 타동사 affect가 다음에 목적어를 수반하므로 능동의 현재분사를 사용한 것은 옳다.
- [회점] 숲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없는 삶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우리가 우리의 숲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삼림파괴가 세계 자연림의 무려 80%의 상실로 이어졌다. 현재 삼림파괴는 세계 적 문제이며 태평양의 온화한 우림 같은 미개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어수어전리

take ~ for granted ~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다 result in ~로 이어지다, ~을 야기하다

by some estimates 일부 추산에 따르면



18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시 9급 3월

p. 111 18번 -교체

p. 113

22번

-교체

I ① $\underline{\text{convinced}}$ that making pumpkin cake ② $\underline{\text{from}}$ scratch would be ③ $\underline{\text{even}}$ easier than ④ $\underline{\text{making}}$ cake from a box.

- ① convince+목적어+that S+V의 구조가 돼야 한다. 그런데 목적어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능동이 아닌 수동이 돼야 한다. convinced를 was convinced로 한다.
 - ② 숙어 from scratch(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처음부터)를 아는지 묻고 있다.
 - ③ 다음에 오는 비교급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사 even을 사용하였다.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로는 much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even도 많이 사용한다. 따라서 바르게 쓰였다.
 - ④ than은 비교 대상을 맞춰야 한다. 문장의 주어가 making ~이므로 than이하도 making으로 한 것은 옳다.
- ●레스의 처음부터 차분히 호박 케이크를 만드는 것이 박스에 든 케이크 믹스로 케이크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고 확신했다.

정답 ①

22 어법상 가장 옳지 않은 문장은?

2018. 서울시 7급 3월

- ① Born in Genoa, Italy, Piccolo Paganini was one of the greatest composers of the nineteenth century. ② While he widely acclaimed as a violinist, Paganini had other musical talents which included tuning, arranging, and composing. ③ More often than not, he turned to the viola and the piano, and in his last years began to practice as an orchestra conductor. ④ But above all he left many beautiful scores for the violin concerto.
- ⑥ Born in Genoa, Italy이 과거분사 born으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one of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온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 ② acclaim A as B의 형태로 'A를 B로 인정하다'가 되는데 목적어가 없으므로 능동이 아닌 수동이 돼야 한다. 따라서 he was widely acclaimed로 해야 한다.
 - ③ 먼저 begin이 to부정사를 취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as가 전치사로 '~로서'의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확인한다. ④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부분은 없다.
- 에쓰 이태리 제노바에서 태어난 파가니니는 19세기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가 바이올리니스트로 널리 인정을 받았지만 파가니니는 튜닝, 편곡 그리고 작곡을 포함한 다른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대단히 자주 그는 비올라와 피아노 에 의존을 했는데 말년에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바이올린 협주곡을 위한 많은 아름 다운 곡을 남겼다.

단어소어정

acclaim A as B A를 B로 환호하다[인정하다]

more often than not 대단히 자주

turn to ~에 의존하다

above all 무엇보다도

score 악보, 작품

정답 ②

13 어법상 옳은 것은?

2017. 지방직 9급 추가 채용

- 1 A week's holiday has been promised to all the office workers.
- ② She destined to live a life of serving others.
- ③ A small town seems to be preferable than a big city for raising children.
- 4 Top software companies are finding increasingly challenging to stay ahead.

p. 167 13번 -교체

- (해설) ① 주어인 A week's holiday와 동사 promise의 의미 관계가 능동이 아닌 수동이므로 수동태의 have been pp 형태를 이룬 것은 옳다. 또한 all the+명사의 어순을 사용한 것도 옳다.
 - ② be destined to v의 형태로 ' \sim 할 운명이다'가 된다. 따라서 She was destined to \sim 로 하는 것이 옳겠다.
 - ③ than이 있는데 앞에 비교급이 없다. 따라서 틀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형용사 preferable은 '~보다'고 할 경우 than이 아닌 to를 사용하므로 비교급을 두는 것이 아니라 than 대신에 to를 사용해야 한다.
 - ④ finding 다음에 가목적어 it을 두어야 한다. find동사는 타동사인데 다음에 목적어가 없다. 따라서 틀린 것을 알 수 있다. increasingly challenging를 목적보어로 하고 to stay ahead를 진목적어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 <u>해석</u> ① 일주일간의 휴가가 모든 사무직원들에게 약속되었다.
 - ②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운명이었다.
 - ③ 소도시가 대도시보다 아이들을 기르는 데 더 좋다.
 - ④ 일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경쟁에서 이기는 일에 점점 힘들어 하고 있다.



20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시 9급 3월

p. 171 20번 -교체 When you find your tongue ① twisted as you seek to explain to your ② six-year-old daughter why she can't go to the amusement park ③ that has been advertised on television, then you will understand why we find it difficult ④ wait.

- (i) find+목적어+분사의 형태로서 이때 분사는 목적어와의 의미 관계, 즉 목적어가 분사의 실질적인 의미상의 주어가 되므로 바로 이 목적어와의 의미 관계로 능동, 수동 관계를 정한다. 바로 tongue과 twist의 의미 관계가 수동이므로 과거분사 twisted라고 한 것은 옳다. 참고로 my tongue is twisted(허가 꼬이네)와 같이 쓰는 것이 옳다고 이해하면 좋겠다.
 - ② '수사-명사+명사'의 구조에서 앞의 명사는 단수로 한다. 따라서 year를 단수로 한 것은 옳다.
 - ③ 주격관계대명사로 쓰인 that이다. 선행사는 바로 앞의 명사 park가 된다. 바르게 쓰였다.
- ④ find it difficult to wait가 돼야 한다. 앞에 가주어 it이 있고 목적보어 difficult가 있으므로 진목적어로 to부정사가 오는 것이 옳겠다. 6월 난 딸에게 TV에서 광고가 되고 있는 놀이공원에 왜 갈 수 없는지 설명하려 할 때 자신도 모르게 혀가 꼬이게 되면 왜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 것인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정답 ④

12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은 것은?

2017. 지방직 9급 추가 채용

Last week I was sick with the flu. When my father ① heard me sneezing and coughing, he opened my bedroom door to ask me ② that I needed anything. I was really happy to see his kind and caring face, but there wasn't ③ anything he could do it to ④ make the flu to go away.

p. 192 12번 -교체

- ⑥절 ① hear가 지각동사로서 다음에 원형부정사 또는 현재분사를 보어로 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보기다. 바르게 쓰였다.
 - ②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맥상 '~인지'라고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접속사 that이 아닌 if 또는 whether가 돼야한다. 둘째 형태상으로 ask가 that절을 취할 경우 ask that S+V의 구조가 되기 때문에 틀린 것을 알 수 있다. 즉 ask 동사가 that절을 취할 경우는 목적어 없이 바로 that절을 취한다는 것이다. 또한 ask가 that절을 취할 경우는 졸속의 동사는 원형이되는 것이 옳은데 원형이 아닌 과거형동사 needed가 있어 틀린 것을 알 수 있다.
 - ③ it을 삭제한다. 본래 anything that he could do의 형태로 목적격관계대명사 that이 있었고 목적격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어 that을 생략한 것이다. 이때 선행사 anything와 동일한 대명사 it을 두어 문장이 성립되지 않게 된 것이다.
 - ④ make는 사역동사이므로 다음에 to부정사가 아닌 원형부정사로 해야 한다. 따라서 to go를 go로 한다.

조리의 지난 주 나는 독감이 걸려 병이 났었다. 아버지는 내가 재채기를 하고 기침을 하는 소리를 듣고 방문을 열어 내가 필요한 게 있는지 물어보았다. 나는 아버지의 친절하고 걱정 어린 표정을 보고 대단히 행복했지만 감기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정답 ①

02 우리말을 영어로 옳게 옮긴 것은?

2018, 지방직 9급

- ① 그는 며칠 전에 친구를 배웅하기 위해 역으로 갔다.
 - → He went to the station a few days ago to see off his friend.
- ② 버릇없는 그 소년은 아버지가 부르는 것을 못 들은 체했다.
 - → The spoiled boy made it believe he didn't hear his father calling.
- ③ 나는 버팔로에 가본 적이 없어서 그곳에 가기를 고대하고 있다.
 - → I have never been to Buffalo, so I am looking forward to go there.
- ④ 나는 아직 오늘 신문을 못 읽었어. 뭐 재미있는 것 있니?
 - → I have not read today's newspaper yet. Is there anything interested in it?
- [해절] ① 먼저 ago로 인해 시제가 과거이어야 한다. 따라서 went를 사용한 것은 옳다. 다음으로 '배웅하다'의 see off를 사용한 것도 옳다.
 - ② '~인체하다'의 표현은 make believe (that) S+V가 된다. 따라서 it은 불필요하다.
 - ③ '~에 가본 적이 없다'의 have never been to, 그리고 '~을 고대하다'의 look forward to를 확인한다. 그러나 look forward to에서의 to는 전치사이므로 다음에 동사가 오면 당연히 동명사로 한다. go를 going으로 한다.
 - ④ anything interested를 anything interesting으로 한다. anything과 interest의 의미 관계가 능동이므로 interesting으로 해야 한다. 물론 부정문에서 yet을 사용한 것은 문제없다.

정답 ①

10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2018. 지방직 9급

- ① 모든 정보는 거짓이었다.
 - \rightarrow All of the information was false.
- ② 토마스는 더 일찍 사과했어야 했다.
 - → Thomas should have apologized earlier.
- ③ 우리가 도착했을 때 영화는 이미 시작했었다.
 - → The movie had already started when we arrived.
- ④ 바깥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나는 차를 마시려 물을 끓였다.
 - → Being cold outside, I boiled some water to have tea.

p. 257 10번 -교체

p. 252

02번

-교체

- (해설) ① 레이 문장의 주어일 경우는 동사의 수는 함께 쓰인 말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불가산명사인 information에 맞춰 단수 동사 was를 사용한 것은 옳다
 - ② '~했어야 했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의 의미를 전달하는 should have pp를 사용한 것이 옳은지를 묻는다. 당연히 바르게 쓰였다.
 - ③ when절의 시제가 과거이다. 그리고 주절은 과거완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미'라는 말로 주절의 시제가 앞선 것임을 보여주고 있고 when절속의 과거 시제에 대해 주절은 과거완료를 사용하였다. 모두 바르게 쓰였다.
 - ④ 분사구문 Being cold outside가 옳은지를 묻는다. 분사구문이 있는 경우는 항상 의미상의 주어를 확인하도록 한다. 이 문장의 경우 의미상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와 일치하는 것이므로 주절의 I가 being~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인데 있을 수 없다. 날씨를 나타내는 주어가 별도로 필요하겠다. 따라서 Being ~을 It being~으로 하도록 한다.

정답 ④

13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2018. 국가직 9급

Focus means ① getting stuff done. A lot of people have great ideas but don't act on them. For me, the definition of an entrepreneur, for instance, is someone who can combine innovation and ingenuity with the ability to execute that new idea. Some people think that the central dichotomy in life is whether you're positive or negative about the issues 2 that interest or concern you. There's a lot of attention 3 paying to this question of whether it's better to have an optimistic or pessimistic lens. I think the better question to ask is whether you are going to do something about it or just 4 let life pass you by.

p. 258 13번 -교체

- ③ ① mean동사가 다음에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할 수 있으므로 getting으로 한 것은 문제없다. 또한 get동사가 본래 get+목적어 +to v의 구조를 취하지만 목적어와 이어지는 동사간의 의미 관계가 수동일 경우는 to부정사 대신 과거분사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stuff와 do의 수동의 의미 관계를 생각해서 과거분사 done으로 한 것도 문제없다.
 - ② 주격관계대명사 that다음 오는 동사의 수를 묻는다고 볼 수 있다. 선행사가 복수명사인 the issues가 되는 것이므로 복수동 사 interest, concern을 사용한 것은 옳다. 또한 or는 같은 것끼리 묶어주므로 동일하게 현재형 동사를 사용한 것도 옳다.
 - ③ 현재분사 paying이 수식하고 있는 attention과 pay동사의 의미 관계가 수동이 되므로 현재분사가 아닌 과거분사 paid가 돼야 한다. 즉 관심이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기울여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 ④ let 사역동사가 원형부정시로 pass를 취했고 pass가 타동사 그리고 by가 부사이므로 대명사 목적어를 그 사이에 둔 것도 옳다. [예절] 집중은 일이 행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따라 행동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내게 있어 기업가의 정의는 혁신과 창의력을 바로 그런 새로운 생각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결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어떤 이들은 삶의 중적이 되는 이분법이 관심을 끌거나 관계있는 문제들에 대해 긍정적이냐 아니면 부정적이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인 렌즈를 갖는 것이 더 나온지에 이런 질문에 기울여지는 관심은 많이 있다. 내 생각에 더 나은 질문은 그것에 대해 무언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삶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고 그냥 지나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ingenuity [ìndʒənjú:əti] n. 발명의 재주, 창의력 pass by [사람 등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다

dichotomy [daikάtəmi/-kɔ́t-] n 이분법

정답 ③

18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시 9급 3월

Lewis Alfred Ellison, a small-business owner and ① a construction foreman, died in 1916 after an operation to cure internal wounds 2 suffering after shards from a 100-lb ice block

③ penetrated his abdomen when it was dropped while ④ being loaded into a hopper.

p. 261 18번 -교체

- [해설] (1) 'a+명사+and a+명사'의 형태로 앞의 고유명사 즉 Lewis Alfred Ellison와 동격을 이루고 있다. 이때 Lewis Alfred Ellison는 한 사람이므로 관사가 하나만 있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각각의 명사가 지니고 있는 신분을 강조하고자 할 때는 관사 를 모두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해서 a를 둔 것은 이하의 construction foreman이라는 신분을 강조하고자 그대로 관사를 살려두었다는 것이다.
 - ② 현재분사 suffering이 수식해주고 있는 wounds와 suffer의 의미 관계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므로 과거분사 suffered로 한다. 여기서 suffer는 타동사로서 '(부상 따위를) 입다, 당하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 ③ 과거동사로서 주어는 shards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묻는다. 결국 앞의 after는 접속사로 쓰였다는 것이다.
 - ④ while접속사 다음에서 현재분사가 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while은 접속사지만 다음에 주어+동사가 아닌 분사도 올 수 있다 는 것을 잊지 말자.
- 🍜 🖰 소규모 사업자이자 건설 현장 감독인 는 100파운드나 되는 얼음 덩어리를 호퍼에 싣다가 이를 떨어뜨려서 여기에서 나온 얼음 조각이 그의 복부를 뚫고 들어간 후에 입게 된 내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받고 난 후 1916년에 사망했다.

foreman [fóːrmən] n 공장장, 감독

shard, sherd [fɑ:rd], [fə:rd] n. 사금파리 파편(fragments)





p. 262

20번

-교체

20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을 고르시오.

2017. 국가직 9급 추가 채용

- ① 식사가 준비됐을 때, 우리는 식당으로 이동했다.
 - → The dinner being ready, we moved to the dining hall.
- ② 저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겠니?
 - → Can you tell who that is over there?
- ③ 이 질병이 목숨을 앗아가는 일은 좀처럼 없다.
 - → It rarely happens that this disease proves fatal.
- ④ 과정을 관리하면서 발전시키는 것이 나의 목표였다.
 - → To control the process and making improvement was my objectives.

●해점 ① 분사구문 The dinner being ready의 표현이 바른지 묻는다. 본래 As the dinner was ready, we moved to the dining hall, 라는 문장이었는데 이를 분사구문으로 전환한 것이다. 접속사를 삭제하고 다음으로 주어가 서로 다르므로 the dinner를 그대로 의미상의 주어로 활용한 것이다. 물론 was를 moved와 같은 시제이므로 단순히 being으로 한 것이다.

- ② 간접의문문의 쓰임이 바른지 묻고 있다. that은 대명사로 쓰인 것이다. 즉 who that is는 '의문사+S+V'의 형태로 쓰인 것을 아는지 확인하는 문제다. 참고로 who는 여기서 is동사의 보어 역할을 하는 것이다.
- ③ it happen that S+V의 구조로 '우연히 ~하다, 공교롭게도 ~하다'의 의미를 전달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리고 prove가 불완전자동사로 다음에 형용사 fatal을 보어로 취하고 있다.
- ④ and는 같은 것끼리 묶어준다. 따라서 앞의 to부정사에 맞춰 뒤에도 to부정사로 하는 것이 좋다. 즉 To control the process and to make improvement로 한다. 물론 동명사로 통일해서 Controling the process and making improvement로 하는 것도 좋다. 참고로 논리적으로도 복수의 보어인 objectives를 objective로 하는 것이 좋겠다.

정답 ④

02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

2017. 국가직 9급 추가 채용

- 1 Undergraduates are not allowed to using equipments in the laboratory.
- ② The extent of Mary's knowledge on various subjects astound me.
- ③ If she had been at home yesterday, I would have visited her.
- ④ I regret to inform you that your loan application has not approved.
- ③집 ① allow 동사는 allow+목적어+to v의 구조를 취한다. 이때 이를 수동으로 하면 be allowed to v가 되는 것이므로 using을 use로 한다. 또한 equipment는 불가산명사로 간주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equipments를 equipment로 하는 것이 좋겠다.
 - ② 동사 astound의 주어는 단수명사인 the extent가 된다. 따라서 단수동사인 astounds로 하는 것이 옳다.
 - ③ 가정법과거완료형태가 바르게 쓰였는지를 묻고 있다. if S had pp, S 조동사과거형 have pp로 하는 것이 가정법과거완료형이므로 바르게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 ④ your loan application과 동사 approve의 의미 관계가 능동이 아닌 수동이므로 has not approved를 has not been approved로 해야 한다. 물론 regret가 다음에 to부정사를 취해서 '~하게 되어 유감스럽다'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 그리고 inform+목적어+that S+V의 구조를 취한 것 모두 바르게 쓰였다.
- 해설 ① 대학 재학생들은 실험실 장비를 이용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
 - ② 메리가 다양한 주제에 관해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놀라게 한다.
 - ③ 만일 어제 그녀가 집에 있었다면 그녀를 방문했을 것이다.
 - ④ 유감스럽게도 귀하의 대출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답 ③

p. 289 02번 -교체

08 우리말을 영어로 옳게 옮긴 것은?

2017. 지방직 9급 추가 채용

- ① 내가 열쇠를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모든 것이 괜찮았을 텐데.
 - → Everything would have been OK if I haven't lost my keys.
- ② 그 영화가 너무 지루해서 나는 삼십 분 후에 잠이 들었어.
 - → The movie was so bored that I fell asleep after half an hour.
- ③ 내가 산책에 같이 갈 수 있는지 네게 알려줄게.
 - → I will let you know if I can accompany with you on your walk.
- ④ 내 컴퓨터가 작동을 멈췄을 때, 나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 컴퓨터 가게로 가져갔어.
 - → When my computer stopped working, I took it to the computer store to get it fixed.
- [레절] ① 가정법과거완료형이 필요하다. 가정법과거완료형 동사는 if S had pp S 조동사과거형 have pp가 된다. 따라서 haven't lost를 hadn't lost로 해야 한다.
 - ② 영화가 '지루하다'는 것은 영화와 '지루하게 하다'의 의미 관계가 능동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과거분사 bored를 현재 분사 boring으로 해야 한다. 물론 so ~ that S+V 구조, 그리고 '잠들다'의 fall asleep 모두 바르게 쓰였다.
 - ③ accompany는 타동사다. 목적어를 취할 때 전치사를 둘 수 없다. 따라서 with를 삭제해야 한다.
 - ④ '~하는 것을 멈추다'의 stop v-ing 그리고 get it fixed에서 it과 fix의 의미 관계가 수동이므로 과거분사 fixed를 사용한 것 모두 바르게 쓰였다.



34 우리말 문장을 영어로 옮긴 것 중 어색한 것은?

- ① 내가 좀 더 일찍 유학을 갔었더라면, 지금쯤 나의 영어는 완벽할 텐데.
 - → If I had gone abroad for study earlier, my English would be perfect by now.
- ② 그런 상품의 완벽한 복제판이 거의 아무런 비용도 들이지 않고 만들어 배포될 수 있다.
 - → Perfect copies of such good can be created and distributed almost costlessly.
- ③ 그 사고는 그녀가 경험하기에는 어려운 경험이었음에 분명하다.
 - → The accident must have been a difficult experience for her to go through.
- ④ 그저 제가 당신의 주소를 바로 적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 → I just want to make sure if I got your address right.

p. 304 34번 -교체

p. 292

08번

-교체

- ① 혼합가정법구문을 아는지 묻고 있다. if절의 내용은 과거 사실이므로 가정법과거완료형이 되었고 주절의 경우는 현재 사실이 므로 가정법과거형이 되었다. 바르게 쓰였다.
 - ② good을 goods로 한다. 의미상 분명 '상품'이라고 하였으므로 상품의 의미를 갖는 goods로 하는 것이 옳다.
 - ③ '~했음에 틀림없다'의 must have pp의 구조를 아는지 묻고 있다. 바르게 쓰였다. 또한 go through에서 전치사 through의 목적어가 없는 이유는 앞의 명사 experience를 수식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앞의 명사를 수식할 때 그 명사가 to부정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는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게 된다는 점에 주의한다.
 - ④ if절이 목적절로 쓰인 것을 아는지 묻고 있다. if절은 타동사의 목적절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바르게 쓰인 것이다.





03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시 7급 3월

UN scientists call the ① emptying of the Aral Sea the greatest environmental disaster of the 20th century. But I only understood the scale of what 2 had happened when I looked at a couple of satellite images that 3 appears in this book. They show a whole sea reduced to a toxic-sump by human action. It is an 4 unprecedented man-made change to the shape of the world.

p. 397 03번 -교체

- 본래 형태는 emptying the Aral Sea가 되는데 이때 목적어에 of를 붙이면 정관사 the가 반드시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보기다. 다시 말해서 emptying of the Aral Sea의 형태는 틀린 형태지만 the emptying of the Aral Sea는 올바른 형태라는 것이다
 - ② 앞의 understood보다 had happened가 먼저 일어난 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해한 것'보다 '일어난 것'이 먼저이므로 had happened를 사용한 것은 옳다는 것이다.
 - ③ 글의 내용이 과거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이 책에 등장하고 있는' 인공위성 사진은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현재 이 책에 들어 있는 것이므로 시제를 과거로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재를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that이 주격관계대명사이므로 이어지는 동사 는 선행사에 수를 일치시켜야 한다. 복수명사인 선행사 a couple of satellite images에 맞춰 appear로 해야 한다. ④ '전례 없는'이라는 형용사임을 아는지 묻고 있다.
- ●점 UN 과학자들은 아랄 해의 물을 뺀 것이 20세기 최대 환경 재앙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나는 이 책에 등장하고 있는 인공위성 사진 두 장을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 규모를 이해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이 사진들은 바다 전체가 인간으로 인해 유독 물질로 가득한 웅덩이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세계에 끼친 전례 없는 인재이다.

sump [sʌmp] n 구덩이, 웅덩이, 오수(지)

unprecedented [ənpre'side,ntid] a 전례 없는



04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2018. 지방직 9급

I am writing in response to your request for a reference for Mrs. Ferrer. She has worked as my secretary ① for the last three years and has been an excellent employee. I believe that she meets all the requirements 2 mentioned in your job description and indeed exceeds them in many ways. I have never had reason 3 to doubt her complete integrity. I would, therefore, recommend Mrs. Ferrer for the post @ what you advertise.

p. 398 04번 -교체

- [해설] (1) for the last+기간의 형태로 '지난 ~동안'의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이때의 시제는 현재완료가 돼야 한다. 따라서 현재완료 has worked와 함께 사용한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 ② 타동사 mention가 목적어가 없어 수동을 나타내는 과거분사 mentioned가 된 것이다. 물론 이는 형용사 역할이므로 앞의 명사 all the requirements를 수식하고 있다.
 - ③ 명사 reason이 다음에 to부정사, 또는 for~가 와서 reason을 수식하게 된다. 따라서 to 부정사를 사용한 것은 옳다.
 - ④ 선행사 the post가 존재한다. 따라서 선행사가 있을 경우는 what을 사용할 수 없어 틀린 보기가 된다. what을 which로
- 해왔으며 뛰어난 직원이었습니다. 그녀가 귀하의 직무 설명서에서 언급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들을 능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녀의 성실함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광고하고 있는 그 자리에 딱 맞는 Ferrer 부인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in response to ~에 답해서 job description 직무 내용 설명서 a reference for ~에 대한 참고 사항



09 어법상 가장 옳은 것은?

2018. 서울시 9급 3월

- 1) If the item should not be delivered tomorrow, they would complain about it.
- ② He was more skillful than any other baseball players in his class.
- 3 Hardly has the violinist finished his performance before the audience stood up and applauded.
- 4 Bakers have been made come out, asking for promoting wheat consumption.

p. 434 09번 -교체

- [해설] ① 가정법 미래의 표현을 묻는다. 가정법 미래의 가장 표준적인 형태인 if S should V, S would V의 형태로 쓰였다. 따라서 바르게 쓰였다.
 - ②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의 형태가 돼야 하므로 players를 player로 한다.
 - ③ hardly [scarcely] had S pp when [before]의 형태가 돼야 하므로 has를 had로 해야 한다.
 - ④ 사역동사 make가 수동이 되었으므로 능동에서 쓰였던 원형부정사는 to부정사가 돼야 한다. 따라서 come을 to come으로 한다.
- (해석) ① 만일 그 물건이 내일 배달되지 않으면 그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표할 것이다.
 - ② 그는 자기 반의 다른 어떤 야구 선수보다 더욱 실력이 좋았다.
 - ③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끝내자마자 청중은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다.
 - ④ 제빵사들이 밀 소비 촉진을 요구하면서 거리로 나오게 되었다.



15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

2017. 국가직 9급 추가 채용

- 1) My father was in the hospital during six weeks.
- 2 The whole family is suffered from the flu.
- 3 She never so much as mentioned it.
- (4) She would like to be financial independent.

- [해설] ① during을 for로 한다. 수사를 동반한 기간 표시의 전치사는 for가 되기 때문이다.
 - ② suffer from(~로 고생하다. ~로 고통을 겪다)의 표현에서 suffer는 자동사이므로 수동태가 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능동이 돼야 한다. 고로 is suffered를 suffers로 하거나 문맥상 진행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 is suffering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
 - ③ not[never] so much as V는 '~조차도 못하다'의 의미를 갖는 표현이다. 바르게 쓰였다.
 - ④ 형용사 financial이 형용사 independent를 수식할 수는 없다. 형용사를 수식하는 것은 부사이므로 financially independent 가 돼야 한다.

해석 ① 아버지는 6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였었다.

- ② 내 가족은 전부 독감으로 고생하고 있다.
- ③ 그녀는 그것에 대해 언급도 하지 않았다.
- ④ 그녀는 재정적으로 독립을 원하고 있다.

정답 ③

p. 437 15번 -교체

20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2018. 국가직 9급

- ① 그 연사는 자기 생각을 청중에게 전달하는 데 능숙하지 않았다.
 - → The speaker was not good at getting his ideas across to the audience.
- ② 서울의 교통 체증은 세계 어느 도시보다 심각하다.
 - → The traffic jams in Seoul are more serious than those in any other city in the world.
- ③ 네가 말하고 있는 사람과 시선을 마주치는 것은 서양 국가에서 중요하다.
 - → Making eye contact with the person you are speaking to is important in western countries.
- ④ 그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만큼 인색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 → It turns out that he was not so stingier as he was thought to be.
- ⑥ 먼저 '∼에 능숙하다'의 be good at을 사용한 것은 문제 없다. 다음으로 '이해시키다'의 표현으로 get across를 사용한 것도 문제 없다. 결국 숙어를 묻고자 출제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 ② 먼저 than이 있으므로 그 앞에 비교급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비교급의 more가 있으므로 이는 문제될 것이 없다. 또한 than은 비교 대상을 일치시켜야 하는데 앞의 주어가 복수명사 the traffic jams가 되므로 이를 복수대명사 those로 받은 것도 문제 없다. 다음으로 문장이 궁극적으로 최상의 의미를 전달하므로 이를 '비교급 than any other+단수명사'의 형태로 한 것도 문제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동명사 주어인 Making~을 사용했으므로 단수동사 is를 사용한 것은 옳다. 또한 the person 다음에 목적격관계대명사 whom을 생략하였다. 전치사 to의 목적어가 없는 것으로 볼 때 그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어가 없는 것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 ④ not so \sim as의 구조에서 so다음에는 원급이 와야 한다. 따라서 비교급의 stingier를 stingy로 해야 한다.

정답 ④

23 어법상 옳은 것은?

2018. 지방직 9급

- 1) Please contact to me at the email address I gave you last week.
- ② Were it not for water, all living creatures on earth would be extinct.
- 3 The laptop allows people who is away from their offices to continue to work.
- 4 The more they attempted to explain their mistakes, the worst their story sounded.

p. 441 23번 -교체

p. 440

20번

-교체

- 해설) ① contact는 타동사다. 타동사는 목적어를 취할 경우 전치사를 취할 수가 없다. 따라서 to를 삭제한다.
 - ② 가정법 과거형 구문이 바르게 쓰였는지 묻는다. 즉 if S were ~, S 조동사 과거형+V의 구조를 가져야 하는데 이 모두 바르게 쓰였다.
 - ③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오는 동사의 수는 선행사에 일치시킨다. who의 선행사는 people이 되므로 is가 아닌 are가 돼야 한다.
- ④ 'the+비교급, the+비교급'이 돼야 하므로 worst를 worse로 한다.
- 해석 ① 내가 지난주에 드린 이메일 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② 물이 없다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멸종할 것이다.
 - ③ 노트북은 사무실에서 떨어져 일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
 - ④ 그들이 자신의 실수를 설명하고자 하면 할수록 해명은 더욱 나쁘게 들렸다.

정답 ②